

신뢰의 조건

저널리즘 전문성과 정파적 편향성이 언론 신뢰와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민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언론 불신 현상이 팽배해진 가운데, 이 연구는 언론 신뢰의 원인과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탐색했다. 제도 신뢰의 한 유형으로서 언론 신뢰는 언론 성과(journalistic performance)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가정 아래, 저널리즘 전문성에 대한 평가와 정파성에 대한 인식이 언론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더 나아가 언론 신뢰의 결과물로서 정치 신뢰에 대해 가지는 함의도 분석했다. 이를 위해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N=1000$), 저널리즘 전문성, 정파적 편향성, 언론 신뢰, 정치 신뢰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객관성, 균형성, 정확성, 다양성, 공익성 차원에서 언론의 전문적·윤리적 수행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언론 신뢰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반면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 인식이 제도언론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저널리즘 전문성과 편향성에 대한 평가는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로도 이어졌다. 언론이 전문적 규범을 실천하고 공익지향성을 가진다고 평가할수록 언론이 매개하는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으나, 권력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언론이 특정 정치집단에 편향돼 있다는 평가할수록 제도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는 낮아졌다.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때 정치 신뢰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 불신이 민주적 공동체의 협력 자원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핵심어: 언론 신뢰, 정치 신뢰, 저널리즘 전문성, 정파적 편향성

* 이 연구는 2015년도 고려대학교 연구팀의 '한국사회 신뢰구축'을 위한 학술기획의 일환으로 수행됐습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성영신 교수님을 비롯한 신뢰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ymin@korea.ac.kr

1. 서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와 발행한 <디지털 뉴스보고서 2016: 한국>(김선호 · 김위근, 2016)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뉴스 신뢰도는 조사 대상국 총 26개국 중 23위를 나타냈다. 만 35세 이하 젊은 층의 뉴스 신뢰도는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등장한 ‘기레기’라는 합성어는 누적된 언론 불신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임철순, 2016, 6, 29). 세월호 오보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언론인이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해석도 존재한다(한창희, 2016). 최근 사드 배치 예정지로 발표됐던 성주에서는 군민들이 언론 보도에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며, 특정 언론의 취재를 저지하기도 했다(권소영, 2016, 7, 18; 조규덕, 2016, 8, 24). 이준웅(2010)은 한국 언론의 공정성 위기가 신뢰의 위기로 전이됐으며, 특히 신문의 신뢰 위기는 미국 · 영국 · 일본의 신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언론 신뢰의 추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Tsfati & Arieli, 2014).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에서 언론 신뢰는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Gronke & Cook, 2007). 래드(Ladd, 2012)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다른 사회정치적 제도나 기관에 대한 신뢰보다 뉴스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문화주의 접근에 따르면, 탈물질적 가치(post-materialist values)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제도 신뢰도 전반적으로 쇠퇴했는데, 언론 신뢰 하락은 이것의 지표 중 하나다(Mishler & Rose, 2001). 권위주의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문화가 쇠퇴하면서 기성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에, 언론 불신 현상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설득력 있는 견해는 언론의 성과 혹은 역할 수행(performance)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Ladd, 2012; Hopmann, Shehata, & Strömbäck, 2015). 그중 하나가 소위 언론의 부정적 관행(media malaise)이 냉소주의와 불신을 낳는다는 가설이다. 예컨대, 키우시스(Kiousis, 2001)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정치보도가 언론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래드(2012)의 연구에서는 선정적 경마보도(horserace coverage)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느냐가 언론 신뢰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퓨 연구소(Pew Research Center)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언론 신뢰와 가장 밀접히 연

관돼 있는 것은 보도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였다(Mitchell, Gottfried, Barthel, & Shearer, 2016). 조사 참여자의 약 20%와 18%가 지역 언론과 전국 언론을 각각 신뢰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해당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평가하는 비율과 유사했다. 미국신문협회(American Press Institute)의 조사에서도 시민들은 언론 평가에서 정확성과 완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merican Press Institute, 2016).

제도주의 접근(institutional approaches)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제도 신뢰가 형성된다(Tsfati & Arieli, 2014). 해당 제도가 기대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경우 신뢰가 높아지며, 그 역할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신뢰는 감소한다. 부정적 보도, 경마보도, 혹은 정확성이나 완결성이 부족한 보도는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것이 사회적 제도로써 언론에 대한 불만족과 불신을 키운다.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 또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혀왔다(Ladd, 2012; Lee, 2010).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언론 비즈니스 모델로 '정파적 선명성'이 강조되고 정치 엘리트 수준에서 이념적·정책적 대립과 극화가 심화되면서 정파적 언론 현상이 확대됐다(Prior, 2013). 래드(2012)는 언론이 정치극화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면서 정치인들의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언론 신뢰성이 하락했다고 지적한다. 시민들 역시 언론이 특정 정치집단이나 이념에 우호적이라고 지각할 경우 언론을 불신하게 된다(Tsfati & Cohen, 2005). 최영재(2011)는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이 언론 진영 간의 적대관계를 고착화할 뿐 아니라 분열 정치와 분열 여론을 확대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사회 전체적인 신뢰 자산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할린과 맨시니(Hallin & Mancini, 2004)에 따르면, 언론 전문직주의(journalistic professionalism), 정치 병행성(political parallelism), 언론 시장(the press market), 국가의 역할(role of the state) 등의 차원을 통해 해당 사회 미디어 체계(media system)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문직주의와 정치 병행성은 시장 구조나 국가의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범주이며(Brüggemann, Engesser Buchel, Humprecht, & Castro, 2014), 해당 사회에서 언론 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전문직주의를 대표하는 지표들은 언론의 자율성, 전문적 규범(professional norms), 공익지향성 등이며(Hallin & Mancini 2004),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전문직주의가 약화될 때 언론 신뢰성도 위기를 맞는다(Brüggemann et al., 2014). 정치 병행성은 언론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보도의 정파적 편향이나 공영방송의 정

치화 등이 주요 지표들이다(Hallin & Mancini, 2004). 선행 연구를 종합할 때, 언론 신뢰의 근원(sources)은 이 두 차원의 지표들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그렇다면 언론 불신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은 어떤 것인가? 신뢰는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기제다(Miller & Krosnick, 2000). 신뢰는 언론 조직이 긍정적인 평판을 쌓고 경제적 이윤 활동을 지속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신뢰 하락은 언론사에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Tsfati & Arieli, 2014; Vanacker & Belmas, 2009). 그러나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목해온 것은 언론 불신이 정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다(Ladd, 2012). 언론 신뢰는 다른 유형의 제도 신뢰와 밀접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언론 불신은 정치 불신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Arieli, 2015). 정치 정보의 매개체에 대한 신뢰 없이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 신뢰는 정치 신뢰의 선결 조건이 된다(Tsfati & Cohen, 2005).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언론 신뢰의 위기에 주목하고 이것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탐색해왔다(김세은, 2006; 이준웅·최영재, 2005; Arieli, 2015; Pjesivac, Spasovska, & Imre, 2015; Tsfati & Arieli, 2014; Yamamoto, Lee, & Ran, 2016). 한국 언론 역시 '신뢰의 위기'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지만, 언론 신뢰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은 이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정파적 진영 논리를 고착화해왔다(김영옥, 2011; 이준웅·조항제·송현주·정준희, 2010; 최영재, 2014). 한국 언론이 스스로 권력기구로 작동하려는 경로를 추구하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쫓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는 가운데 공론장의 기능은 심각하게 무너졌다(김세은, 2006).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뉴스 소비자들의 이탈로 위기가 심화될수록 언론은 공공성을 희생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했으며, 그 결과 저널리즘의 질이 추락하고 불신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김승수, 2010). 디지털 공간에서 이용자들에게 저널리즘 규범 위배나 뉴스 품질 저하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불신이 심화됐다는 해석도 존재한다(박진우, 2015).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전문적·윤리적 역할 수행과 정파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신뢰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언론 신뢰가 정치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자양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세 이상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언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광범하게 조사했다. 연구 결과는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언론 신뢰의 의미

‘신뢰(trust)’는 수세기 동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중심 변인이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신뢰’보다 ‘정보원 신뢰도(source credibility)’라는 개념을 더 선호해왔는데(Kohring & Matthes, 2007), 사실상 이 두 개념은 상당히 차별적이다. 정보원신뢰도는 언론 활동과 그 결과물에 대해 기대하는 다양한 규범 중 하나이지만, 신뢰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Vanacker & Belmas, 2009).

신뢰는 정보가 불충분한 조건에서 그 대상이 미래에 어떤 기대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다(Vanacker & Belmas, 2009). 신뢰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며 필연적으로 위험(risk)을 내포하지만, 사회적 복잡성(social complexity)을 감소시켜 제도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수 있다(Luhmann, 1988). 이런 맥락에서 하니치, 반달렌, 그리고 슈타인들(Hanitzsch, van Dalen, & Steindl, 2016, p. 6)은 “이용자가 언론의 특정 행위를 기대함으로써 그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언론 신뢰를 정의했다. 배내커와 벨마스(Vanacker & Belmas, 2009)는 언론 신뢰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의 산물이 아니라 가치와 규범의 공유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심층적 신뢰의 일종으로 유형화했다. ‘표면적 신뢰’는 도구적이고 계산적이며 위험 감수가 적고 대상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을 때 형성되는 데에 반해, ‘심층적 신뢰’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가치와 규범을 공유할 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 신뢰는 정보(결과물)가 아닌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예컨대, 기자, 개별 매체, 혹은 제도로서의 언론)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언론 신뢰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부재한 가운데, 이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척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Kohring & Matthes, 2007). 일부 연구는 정보원 신뢰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흡수하여, 언론 신뢰를 측정하는 하위 요소들을 개발했다(e.g., Meyer, 1988; West, 1994). 예컨대, 메이어(Meyer, 1988)는 총 9개의 항목을 고안했다. 정보원 신뢰도와 관련하여 공정한(fair), 편향되지 않은(unbiased), 완결적인(telling the whole story), 정확한(exact),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등 5개의 항목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공동체 역할(community affiliation)에 대한 4개 항목을 추가했다.

코링과 마테스(Kohring & Matthes, 2007)는 언론 신뢰를 타당하게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정보원 신뢰도 연구에 저널리즘과 사회에 대한 이론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제

안했다. 특히 언론이 현대 사회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보의 선택과 전달’이기 때문에, 언론을 신뢰한다는 것은 ‘선택성’을 신뢰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 신뢰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을 이슈 선택성(selectivity of topics)에 대한 신뢰, 사실 선택성(selectivity of facts)에 대한 신뢰, 표현 정확성(accuracy of depictions)에 대한 신뢰, 언론 논평(journalistic assessment)에 대한 신뢰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차원당 네 개의 문항을 개발했다. 이슈 선택성은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사건을 보도했는지’에 대한 것이며, 사실 선택성은 ‘중요한 사실을 완결적으로 다루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표현 정확성은 ‘검증 가능한 사실을 보도하고 정확한 정보를 다뤘는지’에 대한 것이며, 언론 논평은 ‘비평이 적절하며 근거를 갖추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독일의 슈베린(Schwerin)과 베를린(Berlin) 지역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표본에서 측정 모형의 동일성(metric invariance)이 입증됐다. 네 차원 중, 잠재변인인 언론 신뢰의 설명력은 사실 선택성과 언론 논평에 대해 가장 높았으며 이슈 선택성에 대해 가장 낮았다.

언론 신뢰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서구 사회 중심으로 전개됐지만, 해당 사회의 정치 및 미디어 체계에 따라 그 의미는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아래, 프예시바츠, 스파소브스카, 그리고 임레(Pjesivac, Spasovska, & Imre, 2015)는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국가 세 곳에서 언론 신뢰의 의미를 탐색했다. 총 61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전문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선택성에 대한 신뢰, 언론제도에 대한 확신감 등이 ‘신뢰’의 주요 차원으로 도출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객관성, 균형성, 정확성, 사실과 의견의 분리 등이 언론 신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서구 사회에서 수용되는 의미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요컨대 언론 신뢰의 의미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을 규명하려는 다차원 접근(multidimensional approach)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 신뢰의 의미는 결국 해당 사회 구성원이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가지는 기대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도 논의했듯이, 그러한 기대는 주로 ‘언론이 전문적·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 실천하는지’와 ‘언론이 감시의 대상인 정치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와 관련돼 있다. 또한 언론 신뢰는 뉴스 보도, 특정 매체, 혹은 제도 전체 등 다양한 단위에서 측정될 수 있다(Turcotte, York, Irving, Scholl, & Pingree, 2015). 생산물로서의 뉴스 콘텐츠나 특정한 뉴스 채널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차원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제도로서의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는 다른 유형의 제도 신뢰에 대한 측정방법을 차용하여 포괄적인 단일 지표를 활용

하는 경우가 많다(Kohring & Matthes, 2007; Pjesivac et al., 2015).

이 연구는 신뢰에 대해 다차원 접근을 한 연구들을 차용하되, 주로 뉴스 노출을 통한 이용자의 언론 경험과 평가를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고 그것이 언론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려고 한다.

2) 언론 신뢰 하락과 그 원인

저신뢰의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 현상이다. 사회의 주요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 신뢰 저하도 이와 궤를 함께한다. 미국의 경우 언론 신뢰가 다른 유형의 제도 신뢰보다 급속하게 하락했다고 하지만(Ladd,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언론 신뢰 하락을 사회 전반적인 저신뢰 현상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론 불신 현상에 고유한 원인과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준웅과 최영재(2005)는 구독률과 열독률의 급속한 하락으로 표출된 신문 위기의 원인을 세 가지 가설을 통해 탐색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인터넷 언론을 위시한 다양한 경쟁 매체가 신문의 기능을 대체·보완한다는 ‘기능 대체 가설’, ‘신문 뉴스가 품질·가격·서비스 등에서 경쟁력을 잃고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저가치 제공 가설’, 그리고 신문의 정치적 편파성이 공정성 시비를 촉발하고 위기를 초래했다는 ‘공정성 위기 가설’ 등이 그것이다. 특히 ‘공정성 위기 가설’은 이념 성향이 강한 비판적 담론 공중이 주류 언론을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며 이것이 전반적인 언론 불신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신뢰의 위기를 촉발하여 신문 이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세은(2006)은 한국 언론의 신뢰 위기를 독립적인 ‘공론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는다. 한국 언론은 (정치권력과 공유하는) 특정한 가치를 공공선으로 추구하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소통시키고 민주적 합의를 매개하는 역할에는 소홀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가치를 추구할 때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하고 이념적·정치적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한국 언론의 속성이 언론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적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선영과 이강형(2008) 역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사례를 분석하면서, 언론이 정부 주도적인 관점을 전달하는 데에 치중하며 ‘사회

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대안적 관점을 소통시키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언론 불신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에서도 언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과 공중 모두에서 언론 불신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년간 네덜란드에서 불거진 저널리즘 이슈들을 분석한 결과, 편향 보도, 비대해진 언론권력,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 공익지향성 부족 등 네 가지 문제로 수렴됐다(Haan & Bardoel, 2011). 앞의 세 이슈는 주로 정치권에서 제기했으며 마지막 이슈는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다.

결국 제도주의 접근이 함축하는 대로, 제도 신뢰는 해당 제도 성과의 산물이며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의미한다(Mishler & Rose, 2001; Newton, 2006). 같은 맥락에서, 언론 신뢰 역시 언론 제도 혹은 언론 조직의 성과를 바탕으로 형성된다(Tsfati & Ariely, 2014).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댈 때, 언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 이슈들은 미디어 체계를 구성하는 네 차원 중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과 정치 병행성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브뤼게만 등(Brüggenmann et al., 2014)은 미디어 체계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각 차원별 척도를 개발했다. 먼저 언론 전문직주의의 경우, 조직 내 보도 자율성,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존재, 공익적 책무감 등을 활용했다. 아리엘리(Arieli, 2015)는 전문직주의를 측정하면서 지배구조 등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자율성보다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규범 실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언론은 정확성, 중요성, 완결성, 균형성, 시의성, 정보원 보호 등의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받기 때문이다. 박진우와 송현주(2014)에 따르면, 한국에서 언론 전문직주의에 대한 논의는 자율성이나 현실적 요건보다 전문직 규범과 공익성을 강조해왔다.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전문직주의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대어, 이 연구 역시 언론이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전문적인 규범 실천과 공익지향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언론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의상 언론의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을 '저널리즘 전문성'으로 집약하여 지칭하고 이용자의 뉴스 평가를 중심으로 이를 측정할 것이다.

박정익(2001)에 따르면, 이용자가 뉴스 품질을 높게 평가할수록 해당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 정보원 신뢰도의 하위 차원인 전문성과 진실성을 언론 평가에 적용할 때, 전자는 공정성, 정확성, 무편향성, 완전성 등 취재·보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의미

하며 후자는 사회적 책임성과 공익성을 의미한다. 1,200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언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뉴스 품질 요소는 공정성, 정확성, 사회적 유의미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재경(2012)은 뉴스의 품질 측면에서 취재원의 투명성과 다양성 부족, 사실 검증의 취약성이 한국 신문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위기를 자초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은(2015)도 '오보'가 언론 신뢰를 잠식한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정확성, 객관적인 진실 검증, 공적 사안에 대한 차분한 보도 등이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한 뉴스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저널리즘 전문성을 객관성, 균형성, 정확성, 다양성, 공익지향성 등의 5가지 차원으로 측정할 것이다. 디지털 뉴스 시대에 저널리즘 가치와 규범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성, 객관적인 사실 검증, 관점의 다양성, 불편부당성 등의 원칙은 고품질의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여전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봉현, 2012; Riordan, 2014/2015). 오히려 디지털 환경 속에서 더 투명한 방식으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를 구현할 기회가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는 정치 병행성 차원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이념옹호, 언론인의 정치적 성향, 보도의 정파적 편향성, 공영방송의 정치화,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척도로 활용했다(Arieli, 2015; Brüggemann et al., 2014). 이 중에서, 이 연구는 정파적 편향성을 언론-정치 병행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하여 언론 신뢰와의 관계를 탐색할 것이다. 보도 편향성은 언론 신뢰 저하의 요인으로 자주 지목돼왔지만(Yamamoto et al., 2016), 관련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서는 정치보도의 편향성 지각이 언론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pmann et al., 2015; Lee, 2010; Tsfati & Cohen, 2005). 예컨대, 츠파티와 코헨(Tsfati & Cohen, 2005)은 주류 언론의 편향성에 대한 적대적 지각이 언론 기관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자 지구(the Gaza Strip)의 유대인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주류 언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편향된 보도를 한다고 지각했고 이는 언론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감퇴시켰다. 스웨덴 연구에서는 언론이 좌편향(left-wing bias)을 가졌다고 평가할수록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Hopmann et al., 2015). 반면 래드(2012)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보도나 경망보도에 비해 정치보도의 편향성이 언론 불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정파적 편향성으로 드러나는 언론-정치 병행성이 언론 신뢰에 미치는 효과는 정치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민사회가 성숙한 사회에서 정치 병행성은 외적 다원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정치 병행성은 그야말

로 자사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정파적 언론’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신뢰는 신뢰 대상과 주체 간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신뢰 대상(예컨대, 언론)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신뢰 주체의 특성도 필연적으로 반영한다(Yamamoto et al., 2016). 이용자의 이념 성향도 그러한 특성 중 하나다. 정파적 언론이 광범하게 등장하고 이용자의 선택적 노출 현상이 확대되면서, 이념 성향에 따라 언론의 정파성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언론매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불신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Arceneaux & Johnson, 2013; Prior, 2013). 적대적 매체 지각 연구들도 이용자의 정치적 입장이 한쪽으로 치우쳐 확고할수록 반대 입장의 정보를 더 편향되거나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밝혔다(Gunther & Schmitt, 2004; Vallone, Ross, & Lepper, 1985). 이준웅과 최영재(2005)의 연구에서도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독자일수록 한국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이용자의 이념 성향과 강도를 고려한 상황에서 탐색해야 한다.

어떤 매체를 얼마나 이용하는가 역시 중요한 이용자 특성 중 하나다(Kiousis, 2001; Tsfat & Arieli, 2014; Yamamoto et al., 2016).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론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신뢰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매체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면, 신문과 방송 등 주류 언론 이용량은 언론 신뢰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인터넷 등 뉴미디어 이용량은 반대 효과를 나타냈다(Ladd, 2012; Tsfat & Cappella, 2003). 이용자의 사회적 신뢰 역시 제도 신뢰의 일종인 언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Hanitzsch et al., 2016; Lee, 2010; Tsfat & Arieli, 2014). 정치 관심(Hanitzsch et al., 2016), 교육 수준(Hanitzsch et al., 2016; Lee, 2010) 등도 언론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인들이다. 일부 연구는 정치 신뢰를 언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다루었지만(Hanitzsch et al., 2016; Lee, 2010), 이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정치 신뢰를 언론 신뢰의 결과로 고려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거는 뒤에서 제시할 것이다.

종합할 때, 언론 신뢰의 주요 원인은 전문직주의와 언론-정치 병행성에 관련된 요인들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문직주의 차원을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실천하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객관성, 균형성, 정확성, 다양성, 공익지향성 등에서의 언론 평가로 측정할 것이다. 정치 병행성은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 즉 특정 정당이나 정치이념에 대한 언론의 치우침을 중심으로 측정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설정하여 저널리즘 전문성과 정파적 편향성 평가가 언론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탐색할 것이다.

연구문제 1. 저널리즘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언론 신뢰와 정치 신뢰

언론 신뢰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그 대부분이 신뢰의 ‘출처’ 혹은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언론 신뢰의 ‘결과’와 ‘함의’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더 드문 편이다(Ariely, 2015).

래드(2012)에 따르면, ‘신뢰’는 매개된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신뢰가 감소하면 언론 영향력의 규모와 범위 역시 위축된다(Tsfati, 2003). 신뢰는 언론사의 경제적 수익 창출과도 관계가 있다(Vanacker & Belmas, 2009). 신뢰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이므로, 이용자는 신뢰 대상에게 시간과 돈 등의 자원을 투자한다. 언론 신뢰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이용자 규모를 축소시키고 언론 기관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Tsfati & Cappella, 2003).

그러나 무엇보다 미디어 체계의 구조와 작동 방식은 해당 사회의 정치 체계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Hallin & Mancini, 2004), 언론 신뢰의 저하는 중요한 정치적·민주주의적 함의를 가진다. 특히 언론 신뢰가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 신뢰는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태도 자원이자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관계 자산이기 때문에(Almond & Verba, 1963; Putnam, 2000), 많은 학자들이 정치 신뢰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왔다(e.g., Pharr & Putnam, 2000; Newton, 2001). 소위 ‘미디어 병폐론(media-malaise thesis)’은 부정적이고 갈등 지향적인 저널리즘이 정치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Cappella & Jamieson, 1997; Patterson, 1994). 언론은 민주주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이기 때문에, 언론이 편향돼 있다고 지각할 때 언론 신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수 있다(Tsfati & Cohen, 2005).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보의 선택적 전달이며, 이 정보를 통해 공중은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낸다(Kohring & Matthes, 2007). 이 때문에 언론 신뢰는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언론에 대한 반응은 정치 체계 전반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Tsfati & Arieli, 2014).

미디어 자율성(media autonomy)이 높은 사회에서는 언론 신뢰와 정치 신뢰가 다소

독립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제도 신뢰의 유형으로서 언론 신뢰와 정치 신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Arieli, 2015). 언론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높은 정치 신뢰를 나타낸다. 물론 그 반대 방향의 설명도 가능하다. 일부 연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이 언론으로 감염(contagion)되거나 언론 불신으로 파급(spill-over)될 수 있다(Hanitzsch et al., 2016; Hopmann et al., 2015). 정치제도와 기관에 대한 불신이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Cappella & Jamieson, 1997).

그러나 츠파티와 코헨(2005)은 정치 정보의 매개체에 대한 신뢰 없이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언론 신뢰가 정치 신뢰의 조건임을 주장했다. 가자 지구 유대인 거주민 413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미디어 편향 지각이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 감소시키는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신뢰를 언론 신뢰의 원인으로 상정했을 때, 모형적합도가 나빠지고 그 경로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래드(2012) 역시 언론 신뢰가 감소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상호 불신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언론 신뢰의 저하가 정파적인 선택적 노출을 촉진하고 정치적 반대 진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불신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언론 신뢰가 다른 민주주의 제도나 기관에 대한 신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추정하고, 언론 신뢰가 정치 신뢰의 원인으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통해 언론이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 즉 저널리즘 전문성과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평가가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와 정치 신뢰의 관계 역시 분석할 것이다.

연구문제 3-1. 저널리즘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정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2.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인식은 정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는 정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조사 대상의 선정과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규모의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N = 1,000$)이며, 2010년 통계청 수치를 기초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¹⁾을 실시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높였다. 최대 규모의 온라인 패널을 보유한 조사 전문기관을 이용했으며, 온라인 설문에 대한 설명서와 링크가 발송된 후 가장 먼저 조사에 참여한 1,000명을 최종 표본에 포함했다. 전체 표본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44.2%와 55.8%를 차지했으며, 만 19~29세가 24.0%, 만 30~39세가 26.0%, 만 40~49세가 25.0%, 만 50~59세가 13.0%, 만 60세 이상이 12.0%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0.25세($SD = 13.03$)였다. 표본의 55.1%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다.

2) 주요 측정변인

(1) 저널리즘 전문성

브뤼게만 등(2014)이 제시한 경험적 측정척도 중, 전문적이고 윤리적 규범과 공익지향성을 활용하여 저널리즘 전문성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를 측정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한국 저널리즘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객관성, 균형성, 정확성, 다양성, 공익성 등 5가지로 정했다(김영욱 · 진민정 · 강신규, 2014; 박정의, 2001; 이재경, 2012; Arieli, 2015; Riordan, 2014/2015). 이 요소들은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뉴스 가치로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한국 언론에 대한 다음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에 표시했다: “한국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객관적인 태도로 보도한다”, “한국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요 사건을 다룰 때 어떤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한국 언론은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보도한다”, “한국 언론은 소수 의견이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 “한국 언론은 자사 이익보다 국민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다섯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17이었으며, 주성분분석 결과 하나의 유의미한 요인이 도출됐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됐으나, 래쉬 모

1) 서울 21%, 부산 7.5%, 대구 5.2%, 인천 5.3%, 광주 3.0%, 대전 3.0%, 경기 22.0%, 강원 3.0%, 충북 3.0%, 충남 4.0%, 전북 3.8%, 전남 3.8%, 경북 5.5%, 경남 6.5%, 제주 1.1%.

형(Rasch model)을 이용한 문항분석(item analysis) 결과 문항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5점 응답항에 해당하는 ‘매우 동의한다’를 선택한 사례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문항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변환함으로써 문항적합도를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 문항 응답의 범주 수를 변환하는 것은 문항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널리 활용하는 방법이다(홍세희 · 조용래, 2006).

(2)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

선행 연구(Arieli, 2015; Brüggemann et al., 2014)를 참고하여, 언론 전체의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한국 언론이 특정 정치이념이나 정치집단에 편향되어 있는 정도’를 5점 척도 위에 표시했다. 래쉬 모형에 따른 문항분석 결과 문항적합도 문제가 발견되어 4점 척도로 변환했다(Cronbach’s alpha = .711).

(3) 언론 신뢰

앞서 논의했듯이, 뉴스 보도나 특정 정보원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차원 접근을 적용하고 제도로서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를 측정할 경우 포괄적인 단일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Kohring & Matthes, 2007; Pjesivac et al., 2015). 이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 전반을 신뢰하는 정도를 5점 척도의 단일 항목으로 측정했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매우 신뢰한다’). 문항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문항을 4점 척도로 변환함으로써 적합도를 향상시켰다.

(4) 정치 신뢰

정치 신뢰는 제도 신뢰의 일종이며 국가와 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를 의미한다(Newton, 2001).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Tsfati, Tukachinsky, & Peri, 2009), 정부와 국회를 신뢰하는 정도를 측정했으며 일반 정치인을 대표하여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5점 척도로 측정했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매우 신뢰한다’). 문항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 문항을 4점 척도로 변환한 후 분석에 투입했다(Cronbach’s alpha = .843).

(5) 통제 변인

① 정치심리 변인

언론에 대한 평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심리 변인으로 이용자의 정치이념 성향과 강도, 사회적 신뢰 및 정치관심도를 고려했다. 먼저 정치이념 성향은 미국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의 관련 항목을 차용하여 7점 척도(‘매우 강한 진보 성향’ ~ ‘매우 강한 보수 성향’)로 측정했으나, 문항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5점 척도로 변환했다. 선행 연구에서 이용자의 이념 강도가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이준웅 · 최영재, 2005; Gunther & Christen, 2002; Gunther & Schmitt, 2004), 이념 성향 변인을 3점 척도의 ‘이념 강도’ 변인으로 변환하여 활용했다.

사회적 신뢰는 일반적인 타인들에 대한 평가를 지칭하기 때문에(Newton, 2001), 우리나라 국민 일반을 신뢰하는 정도로 측정했다. 5점 척도로 측정했으나, 앞서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어 4점 척도로 변환한 후 분석에 투입했다. 정치관심은 ‘평소 정치 문제나 정부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했다.

② 뉴스 이용량

언론에 대한 노출 정도는 언론에 대한 평가와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ousis, 2001; Ladd, 2012; Tsfaty & Arieli, 2014; Yamamoto et al., 2016). 이에 일주일 동안 다양한 유형의 언론매체를 접한 정도를 8점 척도로 측정했다(‘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 ‘매일 이용했다’). 이 중에서 전국종합일간지, 지역종합일간지, 전문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방송, 보도 전문 방송 등 6개 언론매체 이용량의 평균을 주류 언론매체 이용량으로 활용했다. 포털은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서 주로 다른 언론의 보도를 재매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독특한 뉴스 편집과 전달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와 뉴스 콘텐츠 간, 혹은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보 가치를 창출한다(이준웅, 2010).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김선호 · 김위근, 2016), 포털 뉴스 이용량을 독자적으로 측정했다. 이 밖에 소셜 미디어, 정치시사 팟캐스트,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대안적 언론매체 이용량으로 변인화했다.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값²⁾

| 요인 | 측정변수 | N | 평균 | 표준편차 | 편포도 | 첨도 |
|-------------|-----------|-------|------|------|--------|--------|
| 저널리즘 전문성 | 객관성 | 967 | 2.37 | 0.87 | 0.037 | -0.726 |
| | 정확성 | 970 | 2.44 | 0.87 | -0.066 | -0.633 |
| | 균형성 | 969 | 2.17 | 0.86 | 0.209 | -0.738 |
| | 다양성 | 968 | 2.18 | 0.84 | 0.222 | -0.689 |
| | 공익성 | 966 | 2.21 | 0.89 | 0.263 | -0.699 |
| | 정파적 편향성 | 957 | 2.75 | 0.92 | -0.253 | -0.791 |
| | 한국 언론 신뢰 | 958 | 2.55 | 0.75 | -0.032 | -0.338 |
| 정치 신뢰 | 정부 | 1,000 | 2.23 | 0.96 | 0.228 | -0.945 |
| | 국회 | 1,000 | 1.86 | 0.82 | 0.638 | -0.285 |
| | 대통령 | 1,000 | 2.27 | 1.08 | 0.205 | -1.279 |
| 통제 변인 | 이념 성향 | 1,000 | 2.90 | 1.01 | -0.085 | -0.411 |
| | 이념 강도 | 1,000 | 1.75 | 0.68 | 0.367 | -0.853 |
| | 사회적 신뢰 | 1,000 | 2.93 | 0.69 | -0.404 | 0.352 |
| | 정치관심 | 1,000 | 3.50 | 1.11 | -0.441 | -0.321 |
| | 주류 언론 이용량 | 1,000 | 2.18 | 1.51 | 1.376 | 1.294 |
| | 포털 뉴스 이용량 | 1,000 | 6.71 | 1.93 | -1.328 | 0.594 |
| | 대안 언론 이용량 | 1,000 | 2.90 | 1.69 | 0.893 | 0.202 |
| | 최종 학력 | 1,000 | 5.46 | 0.93 | -0.461 | -0.084 |

3) 분석 방법

〈그림 1〉에 제시한 모형에 의거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했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모수를 추정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 개의 측정변수들로부터 추출한 공통 변량을 잠재변수로 사용한다는 점, 이론적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통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강점이 있다(홍세희, 2000). 이 연구의 일부 핵심개념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척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

2) 4점 척도로 변환되기 이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값은 4점 척도로 변환된 이후 산출된 값과 거의 유사하다 [한국 언론의 객관성($M=2.38$, $SD=0.91$), 정확성($M=2.45$, $SD=0.89$), 균형성($M=2.18$, $SD=0.88$), 다양성($M=2.19$, $SD=0.87$), 공익성($M=2.22$, $SD=0.88$), 정치적 편향성($M=3.72$, $SD=1.00$), 한국 언론 신뢰($M=2.56$, $SD=0.77$)].

변수들을 활용해 잠재변수로 구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언론 신뢰의 원인과 결과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도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 먼저 변인들의 정상분포(normality)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편포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기준으로 검토했다. <표 1>에 따르면, 모든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2 < \text{편포도} < 2$, $-4 < \text{첨도} < +4$)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결측치(missing data)가 자료 내 다른 변수들의 값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정보추정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했다(McQueen, Getz, & Bray, 2003). 모형의 적합도 지수(fit indexes)로는 표본 크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며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활용했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후와 벤틀러(Hu & Bentler, 1999)는 우수한 적합도의 기준으로 TLI와 CFI .95 이상, RMSEA .06 이하를 제시했지만, 일반적으로 TLI와 CFI 값은 .90 이상, RMSEA 값은 .08 이하를 수용 가능한 기준으로 인정한다(홍세희, 2000). 카이스퀘어(χ^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매우 엄격한 평가 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로서는 적절하지 않다(홍세희, 2000).

4. 연구 결과

이론적 논의에서 도출한 연구모형에 따라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고 경로계수를 추정하여 각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 앞서 제시했듯이, 이념 성향, 이념 강도, 사회적 신뢰, 정치관심, 주류 언론매체 이용량, 포털 뉴스 이용량, 대안 언론매체 이용량, 최종 학력 등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됐다. 통제변인들 간에는 공분산이 설정됐다.

먼저 적합도 지수는 수용 가능한 기준 이상으로 나타내($\chi^2(79) = 340.38$, $p < .001$, $TLI = .923$, $CFI = .965$, $RMSEA = .058$), 연구모형이 변인들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은 전체적인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³⁾

3) 변인 값을 4점 척도로 변환하지 않고 5점 척도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도, 모델적합도 값과 경로 계수 추정치 등에서 그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도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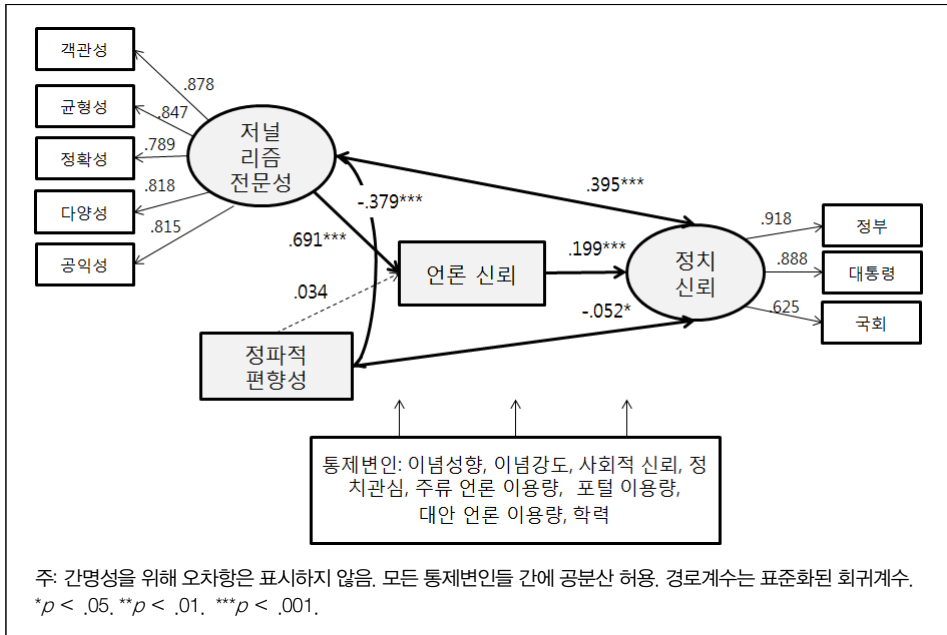


그림 1. 언론 신뢰의 원인과 결과: 한국 언론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먼저 언론 신뢰의 원인을 탐색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먼저 저널리즘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언론 신뢰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764$, $SE = .037$, $p < .001$). 즉 객관성, 균형성, 정확성, 다양성, 공익성 측면에서 한국 언론의 수행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제도로서의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가 상승했다. 잠재변인인 저널리즘 전문성은 객관성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정확성에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매체별로 연구모형을 적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상파방송, 전국종합일간지, 종합편성채널을 막론하고 저널리즘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각 매체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표 2〉 참조). 저널리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수록 언론이 정파적으로 편향됐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높아졌다($r = -.379$, $p < .001$). 언론의 전문직주의와 정치 병행성은 대체로 부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기존 논의(Hallin & Mancini, 2004)를 뒷받침하는 결과다.

반면,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평가는 언론 신뢰에 뚜렷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b = 0.028$, $SE = .021$, $p = .183$). 그러나 정파적 편향성이 언론 신뢰에 미치는 효과는

표 2. 언론 신뢰의 원인과 결과: 매체별 분석 결과

| | 저널리즘 전문성 → 언론 신뢰 ^{a)} | | 정파적 편향성 → 언론 신뢰 | | 저널리즘 전문성 → 정치 신뢰 | | 정파적 편향성 → 정치 신뢰 | | 언론 신뢰 → 정치 신뢰 | |
|------|-----------------------------------|-----------|---------------------|-----------|---------------------|-----------|--------------------|-----------|--------------------|-----------|
| | <i>b</i> | <i>SE</i> | <i>b</i> | <i>SE</i> | <i>b</i> | <i>SE</i> | <i>b</i> | <i>SE</i> | <i>b</i> | <i>SE</i> |
| KBS | 0.793*** | .031 | -0.058* | .024 | 0.376*** | .058 | -0.022 | .033 | 0.133** | .049 |
| MBC | 0.872*** | .034 | -0.050* | .025 | 0.369*** | .066 | -0.015 | .035 | 0.153** | .052 |
| SBS | 0.804*** | .032 | -0.039 | .025 | 0.382*** | .064 | -0.004 | .036 | 0.087 | .053 |
| 경향 | 0.814*** | .038 | -0.018 | .023 | 0.167* | .075 | 0.075* | .034 | 0.012 | .059 |
| 한겨레 | 0.847*** | .033 | -0.032 | .021 | 0.152* | .067 | 0.054 [†] | .032 | -0.074 | .057 |
| 조선 | 0.964*** | .036 | 0.035 | .022 | 0.315*** | .064 | -0.028 | .027 | 0.243*** | .049 |
| 동아 | 0.975*** | .039 | -0.015 | .023 | 0.376*** | .068 | -0.030 | .029 | 0.248*** | .049 |
| 중앙 | 0.966*** | .040 | 0.011 | .024 | 0.419*** | .068 | -0.002 | .030 | 0.173*** | .049 |
| TV조선 | 0.898*** | .031 | -0.014 | .023 | 0.318*** | .067 | 0.043 | .033 | 0.188*** | .055 |
| 채널A | 0.905*** | .031 | -0.042 | .023 | 0.377*** | .071 | 0.014 | .034 | 0.127* | .059 |
| JTBC | 0.723*** | .032 | -0.044 [†] | .024 | 0.000 | .061 | 0.157*** | .036 | 0.095 [†] | .055 |
| MBN | 0.928*** | .037 | -0.039 | .025 | 0.424*** | .076 | 0.050 | .037 | 0.087 | .058 |

a) 해당 매체에 대한 신뢰를 의미.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언론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언론매체별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영방송인 KBS($b = -0.058$, $SE = .024$, $p = .018$)와 MBC($b = -0.050$, $SE = .025$, $p = .044$)에 대해서는 정파적 편향성과 언론 신뢰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됐다. 즉, 공영방송의 정파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그에 대한 신뢰가 감소한 것이다.

한편 언론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먼저 언론이 전문적 규범을 실천하고 공익지향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인식은 정치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b = 0.556$, $SE = .058$, $p < .001$). 언론 전문직주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수록 언론이 매개하는 정치에 대한 신뢰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연구문제 3-1). 연구문제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저널리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언론 신뢰를 매개로 정치 신뢰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추정한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측치가 있을 경우 AMOS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적 방법으로 프로드클린(prodcl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추정했다. ‘저널리즘 전문성 → 언론 신뢰 → 정치 신뢰’

표 3. 통제변인들의 효과계수 추정치

| | 저널리즘 전문성 | | 정파적 편향성 | | 언론 신뢰 | | 정치 신뢰 | |
|----------|-----------|-----------|---------------------|-----------|----------|-----------|----------|-----------|
| | <i>b</i> | <i>SE</i> | <i>b</i> | <i>SE</i> | <i>b</i> | <i>SE</i> | <i>b</i> | <i>SE</i> |
| 이념성향(보수) | 0.137*** | .022 | -0.055 [†] | .030 | 0.004 | .018 | 0.299*** | .023 |
| 이념 강도 | 0.001 | .031 | 0.113* | .044 | 0.021 | .026 | 0.085* | .033 |
| 사회적 신뢰 | 0.276*** | .031 | -0.037 | .043 | 0.164*** | .026 | 0.168*** | .034 |
| 정치관심 | -0.010 | .020 | 0.046 | .029 | 0.026 | .017 | -0.012 | .021 |
| 주류 언론 이용 | 0.066*** | .015 | -0.008 | .022 | 0.011 | .013 | 0.041* | .016 |
| 포털 뉴스 이용 | -0.029* | .011 | 0.062*** | .016 | 0.008 | .009 | -0.003 | .012 |
| 대안 언론 이용 | 0.007 | .014 | 0.007 | .020 | -0.012 | .011 | -0.032* | .014 |
| 최종 학력 | -0.077*** | .023 | 0.060 [†] | .032 | 0.006 | .019 | 0.023 | .024 |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정로의 간접효과에 대한 95% 수준의 신뢰도 구간은 0.191에서 0.195 사이였다.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지각 역시 정치 신뢰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054$, $SE = .026$, $p = .042$). 정치권력을 감시할 책임과 권리를 가진 언론이 특정 정치집단과 밀착되어 있다는 인식은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시켰다(연구문제 3-2).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와 관련해서 언론 신뢰는 정치 신뢰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b = 0.253$, $SE = .046$, $p < .001$). 이 결과를 통해, 정치 정보의 매개체로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때 정치 체계에 대한 반응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인으로 고려했던 다양한 변인들도 핵심 변인들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표 3〉 참조).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언론의 전문적 규범 실천과 공익지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b = 0.137$, $SE = .022$, $p < .001$), 정파적 편향성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미약하나마 존재했다($b = -0.055$, $SE = .030$, $p = .067$). 이용자의 이념 성향은 언론 신뢰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정치 신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b = 0.299$, $SE = .023$, $p < .001$). 보수적 이념 성향이 강할수록 제도 정치에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선행 연구가 제시한 대로 이념 강도는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 지각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b = 0.113$, $SE = .044$, $p = .011$). 즉, 이념 강도가 높을수록 언론이

정파적으로 편향됐다는 인식이 강했다. 사회적 신뢰는 저널리즘 전문성 평가와 언론 신뢰 및 정치 신뢰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언론에 대한 신뢰($b = 0.164, SE = .026, p < .001$)와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b = 0.168, SE = .034, p < .001$)가 모두 높아졌다. 언론 이용 형태에 따라 저널리즘에 대한 평가와 신뢰도 다르게 나타났다. 신문과 방송 등 주류 언론 이용량이 높을수록 제도언론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게 평가했으며($b = 0.066, SE = .015, p < .001$),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b = -0.029, SE = .011, p = .011$). 포털 뉴스 이용량이 많을수록 언론 전반의 정파적 편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기도 했다($b = 0.062, SE = .016, p < .001$). 선행 연구 결과(e.g., Ladd, 2012; Tsfati & Arieli, 2014)와는 달리, 대안적 언론 이용이 제도언론에 대한 신뢰를 직접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치 신뢰와는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b = -0.032, SE = .014, p = .028$).

5. 결론

언론 불신 현상은 더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언론 신뢰 추락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다양한 국가에서 언론 신뢰 하락의 원인을 개인적·구조적 수준에서 규명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김세은, 2006; 이준웅·최영재, 2005; 이준웅, 2010; Ladd, 2012; Lee, 2010; Pjesivac et al., 2016; Yamamoto et al., 2016).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Arieli, 2015; Hanitzsch et al., 2016; Tsfati & Arieli, 2014).

현대 사회에서 신뢰는 사회적 복잡성을 줄이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관계자원이며, 경제성장이나 정치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Ostrom & Ahn, 2003; Putnam, 2000). 신뢰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상의 특정 행위를 기대하고 그것이 위반될 가능성까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Luhmann, 1988). 커뮤니케이션 연구도 그 초기부터 신뢰 개념에 주목했지만, 여전히 일관된 정의나 표준화된 측정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원 신뢰도의 요소들을 통합하되 저널리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투영하여 ‘언론 신뢰’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Kohring & Matthes, 2007).

제도에 대한 신뢰는 그 제도의 성과에 기반을 둔다(Yang & Holzer, 2006). 제도 신뢰의 한 유형으로서 언론 신뢰 역시 언론의 성과, 즉 그 구체적인 활동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할 때,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준수하는가?’와 ‘특정 정치집단 혹은 정치이념에 부당하게 편향돼 있는가?’라는 두 차원의 평가가 언론 신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Bruggemann et al., 2014; de Haan & Bardoel, 2011; Ladd, 2012; Tsfati & Arieli, 2014). 이는 할린과 맨시니(2004)가 제안한 미디어 체계의 구성 차원들 중, 언론 전문직주의와 정치 병행성에 관련된 지표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언론이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를 1) 전문적 규범 실천과 공익지향성, 즉 저널리즘 전문성 차원과 2) 정파적 편향성 차원에서 살펴본 후, 각 차원의 평가가 언론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언론 체계는 해당 사회의 정치 체계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이기 때문에 언론 신뢰 저하는 중요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서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한 기대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정치 체계 전반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준다(Tsfati & Cohen,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제도 언론에 대한 평가와 신뢰가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전국 규모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으며($N=1000$), 저널리즘 전문성 및 정파적 편향성, 언론 신뢰, 그리고 정치 신뢰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에는 저널리즘 전문성 평가가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성, 균형성, 정확성, 다양성, 공익성 차원에서 언론의 전문적·윤리적 수행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언론 신뢰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으나,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에 대한 인식은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한국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이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모형을 언론매체별로 적용했을 때 분석 결과는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전국종합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 전체에 대한 것과 유사한 분석 결과가 도출됐으나, 공영방송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파적 편향성이 언론 신뢰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공영방송에 대해 정치적 공정성을 더 기대하며 그것이 위반됐을 때 불신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언론에 대한 평가는 정치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언론이 전문적 규범을 실천하고 공익지향성을 가진다고 평가할수록 그것이 매개하는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 책임과 권리를

가진 언론이 특정 정치집단이나 이념에 밀착됐다는 평가는 정부, 국회, 대통령 등 제도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다. 저널리즘 전문성 차원의 언론 평가는 언론 신뢰를 매개로 정치 신뢰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는 정치 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언론은 정치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치 제도’에 대한 특정한 기대를 창출하는데, 언론이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를 잃을 때 정치 행위자들에 대한 평가와 신뢰 역시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용자들의 이념적 성향과 강도는 예상했던 대로 언론 평가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한국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이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한 반면에 저널리즘의 전문성과 윤리성은 높게 평가했다. 이념 성향은 언론 신뢰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간접효과를 포함한 전체 효과를 추정했을 때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언론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강도가 높을수록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념 성향과 강도를 고려한 이후에도 저널리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언론 신뢰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의 언론 불신 문제는 이용자의 성향에 따른 선택적 지각이나 반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뛰어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언론 신뢰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표준화된 측정 척도가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언론 신뢰의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 역시 그러한 제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첫째, 언론 신뢰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은 저널리즘 전문성이나 편향성에 관련된 요인들을 ‘신뢰’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로 고려했다(Kohring & Matthes, 2007; Pjesivac et al., 2015). 반면에 언론 신뢰를 단일 지표로 포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이 요인들을 신뢰의 출처, 즉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다뤘다(Tsfati & Arieli, 2014; Hanitzsch et al., 2016; Yamamoto et al., 2016). 이 연구는 후자의 접근을 취했지만, 저널리즘 전문성을 구성하는 측정 항목들의 내용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전통적인 저널리즘 규범에 더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투명성, 개방성, 심층성, 공유성 등(Riordan, 2014/2015)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단일 항목으로 정파적 편향성을 측정함으로써, 언론인과 언론 조직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정 정치세력과의 관계, 언론 독자들의 정파성 등 정치 병행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항목들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점을 노정했다. 그 때문에 정파적 편향성과 언론 신뢰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언론 신뢰를 정치 신뢰에 선행하는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일부 선행 연구는 감염 가설이나 파급 가설을 통해 정치 신뢰를 언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안했다(Hanitzsch et al., 2016; Hopmann et al., 2015). 이 연구 결과는 언론 신뢰가 정치 신뢰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경쟁 가설을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했다. 언론 신뢰와 정치 신뢰가 상호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큰 만큼, 슬레이터(Slater, 2007)가 제안한 강화나선 모델(reinforcing spirals model) 등의 중단 분석을 통해 그 인과적 방향을 정교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언론 신뢰는 정치 신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제도 신뢰와 밀접하게 연동하기 때문에, 언론 신뢰의 붕괴는 공동체의 신뢰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론 신뢰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만큼, 그 결과를 엄밀하게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계는 이 연구가 한국 언론의 신뢰가 하락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구조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언론의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에 대한 낮은 평가가 낮은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명한 결과다. 이 연구는 언론 신뢰가 저널리즘의 전문성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왜 한국 언론의 전문적이고 윤리적 실천이 약화됐고 그 결과 신뢰를 잃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못했다.

그러나 저신뢰와 불신에 대한 담론들이 넘쳐나는 가운데에서도 정작 본격적으로 신뢰의 문제를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언론 불신, 더 나아가 언론 혐오와 회피 현상까지 관찰되는 시대에, 언론 신뢰 하락을 제도 신뢰가 감소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문제로만 여기거나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언론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박진우(2015)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가 확장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공간에서 한국 언론은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행위 전략에 치중해왔다.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 언론 전문직주의가 활성화되고 제도화되는 계기가 됐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것이 언론-정치 병행성이 형성된 한국적 맥락이고, 저널리즘 전문직 규범과 현실의 실천이 여전히 현격하게 단절된 원인이다(박진우, 2015). 이 연구는 한국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러한 조건에서 심화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언론의 '전문직주의' 문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즉 언론 활동이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전문적 규범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언론 신뢰의 중요한 근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에 천착하여 전문적이고 윤

리적인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다. 김세은(2006)이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 언론’보다 ‘옳은 언론’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언론이 특정한 가치를 공공선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따른 사회변화를 이끄는 것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고 그것에 따라 공론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언론 신뢰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언론은 객관적인 태도로 사실 검증에 철저해져, 소수 의견이나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포괄하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며 자사 이익이 아닌 공익적 관점에서 뉴스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과 측근의 권력 남용과 비리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는 검증 가능한 사실에 입각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뉴스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뉴스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기대를 이끌어냈으며 언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치권력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대가로 공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전략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언론의 고유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경제적 전망까지 위협할 수 있다. 물론, 이 연구의 진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여전히 현실과의 격차는 크다. 선행 연구들(예컨대, 이재경, 2012;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뉴스 품질 차원, 언론인 차원, 언론 관행과 조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제도 차원의 혁신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

참고 문헌

- 권소영 (2016, 7, 18). “범죄 집단으로 몰지마라”, 성주 군민 언론 불신 팽배. 〈노컷뉴스〉. URL: <http://www.nocutnews.co.kr/news/4624331>
- 김선호 · 김위근 (2016). 한국 뉴스 생태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10가지 지표: 한국언론진흥재단-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공동 연구 결과. 〈미디어이슈〉, 2권 6호, 1-12.
- 김세은 (2006). 민주주의와 언론의 신뢰: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55-78.
- 김세은 (2015). 오보와 검증 없는 저널리즘: 오보 별점제 도입, 오보DB 구축 필요. 〈신문과 방송〉, 536호, 44-48.
- 김승수 (2011).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와 대안. 〈한국언론과학연구〉, 11권 3호, 5-32.
- 김영옥 (2011).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 사회의 소통 위기〉 (170-217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옥 · 진민정 · 강신규 (2014). 〈저널리즘의 품질: 평가 기준과 모델〉 (연구서 2014-04).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정의 (2001). 다매체 시대의 매체별 신뢰도 분석: 온라인과 전통매체의 변별요소, 뉴스의 사회성. 〈한국방송학보〉, 15권 3호, 129-154.
- 박진우 (2015).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 언론-정치 병행관계의 한국적 맥락. 〈한국언론정보학보〉, 74호, 177-196.
- 박진우 · 송현주 (2012). 저널리스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문직 노동과 직업 전망에 대한 위기의식. 〈한국언론정보학보〉, 57호, 49-68.
- 유선영 · 이강형 (2008). 〈저신뢰 위험사회의 한국 언론〉 (연구서 2008-06).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봉현 (2012). 뉴미디어 환경과 언론인 직업 규범의 변화: 리영희 언론정신을 통한 탐색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9호, 31-49.
- 이재경 (2012). 신문의 가치와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형 저널리즘 모델의 성찰. (한국언론학회 · 한국신문협회 공동 주최 제56회 신문의 날 기념 특별기획 토론회 발표문).
- 이준웅 (2010). 언론 체계와 신문의 가치 창출: 이른바 ‘신문위기’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4권 4호, 253-275.
- 이준웅 · 조항제 · 송현주 · 정준희 (2010). 한국사회 매체 체계의 특성: ‘민주화 이행 모형’의 제안. 〈커뮤니케이션 이론〉, 6권 1호, 87-143.
- 이준웅 · 최영재 (2005).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5-35.
- 임철순 (2016, 6, 29). 기레기를 누가 키웠다. 〈한국일보〉.

URL: <http://www.hankookilbo.com/v/586fe1bba322442b99609073967019f7>

- 조규덕 (2017, 8, 24). 그들이 언론에 바라는 점은 한결같았다,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 <기자협회보>. URL: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9804>
- 최영재 (2014). 공영방송 보도국의 정파적 분열: 민주화의 역설, 정치적 종속의 결과. <커뮤니케이션이론>, 10권 4호, 476-510.
- 최영재 (2011). 분열 정치와 분열 언론 그리고 분열 여론의 악순환 이론.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 사회의 소통 위기> (218-246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언론진흥재단 (편). (2010). <한국 신문의 미래 전략: 디지털 시대의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위하여>. (신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보고서).
- 한장희 (2016). 김영란법, 언론인은 예외인가 필수인가. <관훈저널>, 140호, 11-17.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권 1호, 161-177.
- 홍세희 ·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제공: Rasch 평정척도모형의 제공.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권 3호, 865-880.
- Almond, G. A.,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merican Press Institute (2016). A new understanding: What makes people trust and rely on news. Retrieved from <https://www.americanpressinstitute.org/publications/reports>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ceneaux, K., & Johnson, M. (2013). *Changing minds or changing channels? Partisan news in an age of choic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ieli, G. (2015). Trusting the press and political trust: A conditional relationship.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and Parties*, 25(3), 351-367.
- Brüggemann, M., Engesser, S., Buchel, F., Humprecht, E., & Castro, L. (2014). Hallin and Mancini revisited: Four empirical types of Western media systems. *Journal of Communication*, 64, 1037-1065.
- Cappella, J. N., & Jamieson, K. H. (1997). *Spiral of cynicism: The press and the public goo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alton, R., Beck, P. A., & Huckfeldt, R. (1998). Partisan cues and the media: Information flows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111-126.
- de Haan, Y., & Bardoel, J. (2011). From trust to accountability: Negotiating media performance in the Netherlands, 1987-2007.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6(3), 230-246.
- Gronke, P., & Cook, T. E. (2007). Disdaining the media: The American public's changing attitudes toward the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24(3), 259-281.

- Gunther, A. C., & Christen, C. T. (2002). Projection or persuasive press? Contrary effects of personal opinion and perceived news coverage on estimates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2, 177-195.
- Gunther, A. C., & Schmitt, K. (2004). Mapping boundaries of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54, 55-70.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Essex, UK: Pearson.
- Hallin, D. C.,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itzsch, T., van Dalen, A., & Steindl, N. (2016, 6). The erosion of trust in the press as “spill-over” effect: A comparative and longitudin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Fukuoka, Japan.
- Hopmann, D. N., Shehata, A., & Strömbäck, J. (2015). Contagious media effects: How media use and exposure to game-framed news influence media trust.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8, 776-798.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iousis, S. (2001). Public trust or mistrust? Perceptions of media credibility in the information age. *Mass Communication & Society*, 4, 381-403.
- Kohring, M., & Matthes, J. (2007). Trust in news medi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scale. *Communication Research*, 34(2), 231-252.
- Ladd, J. M. (2012). *Why Americans hate the media and how it matter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e, T-T. (2010). Why they don't trust the media: An examination of factors predicting trus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4, 8-21.
- Luhmann, N. (1988). Familiarity, confidence, trust: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D.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pp. 94-107). New York, NY: Blackwell Publishing.
- McQueen, A., Getz, J. G., & Bray, J. H. (2003). Acculturation, substance use, and deviant behavior: examining separation and family conflict as mediators. *Child Dev.*, 74(6), 1737-1750.
- Meyer, P. (1988). Defining and measuring credibility of newspapers. Developing an index. *Journalism Quarterly*, 65, 567-574.
- Mishler, W., & Rose, S. (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 30-62.
- Mitchell, A., Gottfried, J., Barthel, M., & Shearer, E. (2016). The modern news consumer: News attitudes and practices in the digital era. Pew Research Center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journalism.org/2016/07/07/the-modern-news-consumer/>
- Miller, J., & Krosnick, J. (2000). News media impact on the ingredients of presidential

- evaluations: Politically knowledgeable citizens are guided by a trusted sour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 301-315.
-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 201-214.
- Newton, K. (2006). Institutional confidence and social trust. In M. Torcal & J. R. Montero (Eds.), *Political disaffec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Social capital, institutions, and politics* (pp. 81-100). New York, NY: Routledge.
- Ostrom, E., & Ahn, T. K. (Eds.) (2003). *Foundations of social capital*. Northampton, MA: Edward Elgar.
- Patterson, T. E. (1994). *Out of order*. New York, NY: Vintage.
- Pharr, S., & Putnam, R. D. (2000).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jesivac, I., Spasovska, K., & Imre, I. (2016) The truth between the lines: Conceptualization of Trust in news media in Serbia, Macedonia, and Croatia.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9(3), 323-351.
- Prior, M. (2013). Media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6, 101-127.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 Riordan, K. (2014). *Accuracy,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How legacy media and digital natives approach standards in the digital age*. 양정애 · 김선호 · 박대민 (역) (2015).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원칙: 정확성, 독립성, 불편부당성>.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Slater, M. D. (2007). Reinforcing spirals: The mutual influence of media selectivity and media effects and their impact on individual behavior and social identity. *Communication Theory*, 17(3), 281-303.
- Tsfati, Y. (2003). Does audience skepticism of the media matter in agenda setting?.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7(3), 157-176.
- Tsfati, Y., & Ariely, G. (2014). Individual and contextual correlates of trust in media across 44 countries. *Communication Research*, 41(6), 760-782.
- Tsfati, Y., & Cappella, J. N. (2003). Do people watch what they do not trust?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news media skepticism and exposure. *Communication Research*, 30(5), 504-529.
- Tsfati, Y., & Cohen, J. (2005). Democratic consequences of hostile media perceptions: The case of Gaza sett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0(4), 28-51.
- Tsfati, Y., Tukachinsky, R., & Peri, Y. (2009). Exposure to news, political comedy, and entertainment talk shows: Concern about security and political mistrus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1(4), 399-423.
- Turcotte, J., York, C., Irving, J., Scholl, R. M., & Pingree, R. J. (2015). News recommendations from social media opinion leaders: Effects on media trust and information seeking. *Journal*

-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0(5), 520-535.
- Vallone, R. P., Ross, L., & Lepper, M. R. (1985).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577-585.
- Vanacker, B., & Belmas, G. (2009). Trust and the economics of new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Research*, 8(2), 36-45.
- West, M. D. (1994). Validating a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credibility: A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approach. *Journalism Quarterly*, 71(1), 159-168.
- Yamamoto, M., Lee, T.-T., & Ran, W. (2016). Media trust in a community context: A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and prefecture-level sources of media trust in Japan. *Communication Research*, 43(1), 131-154.
- Yang, K., & Holzer, M. (2006). The performance-trust link: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114-126.

최초 투고일 2016년 10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1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6년 11월 22일

Abstract

When We Trust

The Effects of Journalistic Professionalism and Partisan Bias on the Public Trust in the Press and Politics

Young Min

Professor, Korea University

Upon the rapidly increasing distrust in the Korean press,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rust in the news media in a comprehensive manner. Assuming that public trust in the press is formed based upon the performance of the news media as an important social institu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ublic's evaluation of journalistic professionalism and partisan bias influences how they trust the Korean pres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how press trust is further associated with political trust. Specifically, a nationwide online survey ($N = 1,000$) was conduc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re highly individuals evaluated the professional and ethical performance of the press in terms of objectivity, neutrality, accuracy, diversity, and public accountability,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trust the press. On the contrary, the perceived partisan bias of the Korean press did not meaningfully influence the level of trust in the media. When people think that the news media perform in professional and politically unbiased ways, they tend to trust politics which is mediated by the news. Press trust is significantly related to political trust, indicating that increasing distrust in the press may weaken the cooperative resources in a democratic community.

Keywords: press trust, political trust, journalistic professionalism, partisan bias